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노승현¹, 정재민^{2*}, 최은지³, 김한나⁴

¹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 ²루터대학교 상담학과, ³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 ⁴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School Dropout

Seung Hyun Roh¹, Jae Min Jung^{2*}, Eun ji Choi³, Han Na Kim⁴

¹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 Ji University

²Department of Counseling, Luther University

³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 Ji University

⁴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구성하는 잠재적 변인과 각 변인의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문항들을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개발 및 수집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는 10요인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동일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외적태도, 내적태도, 부모태도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는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Scale of the danger in the adolescents' school-dropout. The present dissertation developed the questions and collected them on the base of the potential variables, that consist of the school-dropout of adolescents, an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each variable,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precedent research and the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s. In addition, the interviews for the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the school-dropouts of adolescents are performed and are analyzed, and then the relevant questions were culled.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48 questions and 10 factors. The questions which have the same factors and clustered are reflected, and then are discerned into 3 dimensions, that is, the outer attitude, the inner attitude, and the attitude of parents. The Scale of the danger in the adolescents' school-dropout which is contriv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vent school-dropouts to teenagers and the teachers.

Keywords : school dropout, youth dropouts

1. 서론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결과[1].에 의하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총 6만8188명으로 전체 제적학생의 1.01%가 학업중단을 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발달, 개인적 성취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시민 사회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해

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OECD 등 선진 국가들은 이전부터 학업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2].

학업중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따라서 이들을 지칭하여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Jea-Min Jung(Luther University)

Tel: +82-031-679-2343 email: ikoo2442@ltu.ac.kr

Received July 2, 2015

Revised (1st September 1, 2015, 2nd October 1,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학습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학교로 복교시키려는 연구나 복귀에 따른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와 같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방안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3].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가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조치였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 역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연부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6년 57,148명 → 2007년 70,796명 → 2008년 73,494명 → 2009년 72,08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심리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문제를 갖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은 많지만 유용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및 단체 활동 참여 등 사회성이 매우 저조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대부분 어린 연령과 낮은 학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비행과 연결되는 경향이 높다[5].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학업중단의 개념, 실태, 대책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6,7,8] 등의 연구물이 있지만 학업중단의 유형만 제시했을 뿐 학업중단의 사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학업중단 후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9,10,11] 등이 그것으로서 학업중

단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업중단 위험성을 사전에 발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험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2.1.1 예비 검사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했다. 서울에 소재한 3개의 중학교에서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남학생 87명, 여학생 113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이후 서울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이 된 학생들은 남학생 79명, 여학생 121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2.1.2 본 검사

예비 검사를 통해 완성된 본 검사는 서울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 1.2.3학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된 14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총 18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2 자료 분석

2.2.1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1차 검사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학계 전문가 3명에게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평정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지도학 박사 1인, 청소년지도학 박사수료 1인, 청소년지도학 박사과정 1인으로 구성했다.

2.2.2 문항분석

수집된 자료는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문항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의한 단변량 정상분포를 살펴보았다.

2.2.3 탐색적 요인분석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은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이는 문항을 추출하고 요인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요인분석의 실시에 앞서 KMO(Kaiser - Meyer - 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였다. 요인의 추출 방법은 변수들 간의 상관을 허용하는 회전방법인 사교회전(Oblique rotation)과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을 이용했으며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과 총 분산비 60%이상, 그리고 요인부하량 .5이상의 변인들을 기준으로 했다.

2.2.4 확인적 요인분석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의 모형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요인분석은 공분산 행렬자료를 자료로 사용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적용했다. 또한 CMIN/df를 활용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표본의 크기를 고려했다. 이후 TLI, CFI, RMSEA 지수를 사용했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표본 크기의 영향을 덜 받고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2.3 척도개발 절차

2.3.1 구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학업중단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학업중단 위험성이란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이나 태도,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 개인적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스마트폰 의존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두고 싶은 정서 상태’ 라고 정의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은 Table 1과 같이 구성 요인을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Table 1. The concept of school dropout risk

dimension	factor	contents
external behavior	Attitude to School Life	Checking the number of attendances and attitude to absence and lateness
	Peer-Relation	Relationship with friends
	School Stress	school refusal, difficulty of compliance with rules, conflict with a teacher, mistrust of the school system

	Will to Graduate	commitment to graduation
	Maladjustment to Learning	The level of adjustment to learning, and how to cope with it
	Will to Keep Learning	Will to continue their studies
inner behavior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the awareness of self-respect
	Smartphone Dependency	Self-control capability for using smarpphone
parents attitude	Parent Apathy	Parents' indifference to their child

2.3.2 문항 개발 및 수집

문항 개발 및 수집은 우선, 구인의 개념에 맞게 선행 연구와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경험한 교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97문항이 구성되었고 구성된 문항은 문항 검증을 통해 최종적인 구성 문항을 선정하였다.

2.3.3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1차 검사지 제작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청소년지도학을 전공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에게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4점 척도(1점: 매우 적절함, 4점: 전혀 적절하지 않음)로 평정하도록 했다. 문항평가 기준은 문항의 내용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가와 각 하위요인의 구성에 적합한가이다.

2.3.4 1차 문항분석 및 문항추가를 통한 2차 검사지 제작

내용타당도 검증은 추출된 97개의 문항을 1차 검사로 제작하여 총 200명(남학생 87명, 여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중순에 해당 학교 교과담당 교사를 통해 실시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각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하여 분포의 정상성을 탐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2].

첫째, 평균은 분포의 집중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로 중앙값에 근접하는가를 확인했다. 둘째, 표준편차는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분포가 넓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왜도는 분포의 좌우대칭을, 첨도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 ± 2를 기준으로 삼았다. 척도의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했고 문항별 평균은 1.66~3.76점 사이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가 -2~+2를 벗어난 문항들은 제거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양호한 문항인데 문항분석 기준에서 근소한 차이로 벗어나 있는 문항의 경우에는 2차 문항분석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여 제거하지 않고 일단 남겨두고 2차 검사를 제작하기로 했다.

2.3.5 2차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검사지 제작

2차 검사는 1차 문항 검증과정에서 전체 97문항 중 27문항이 탈락하여 70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70문항은 남학생 79명, 여학생 121명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초순 서울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에서 검사가 진행 되었고, 수집된 18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차 문항분석은 1차 문항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통계분석을 적용했다. 2차 문항분석에서는 평균이 1.87~3.85점 사이에 있고, 표준편차는 0.602~1.072 사이에 있는 것으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가 ±2를 벗어나지 않는 문항들만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은 전체 문항 수는 총 57개였다. 2차 문항분석 후 남은 57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은 객관적인 검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타당도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추출하고 요인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교회전(Oblique rotation)과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실시했다.

2.3.6 유효 요인수와 문항 결정의 기준

유효한 요인수와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리 도표에서 급경사 지점에 있는 요인, 요인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효한 요인수를 결정했다. 둘째, 요인계수(요인 부하량)는 .5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되, 단일 차원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만 .50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들은 .50미만인 문항만 유효문항으로 결정했다. 셋째, 한 요인에 부하되는 최소 문항 수에 대한 기준은 학자에 따라 3~

5개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최소한 3개 이상인 요인들만 최종적인 요인으로 선정했다.

2.3.7 요인의 고유 값과 설명 분산 비율

학업중단 척도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정도와 관련하여, KMO (Kaiser-Meyer-Olkin) 값이 .876로 1에 근접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p < .001$ 로서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응답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우도 방법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 고유 값과 설명 분산 비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유 값이 1.0이상인 요인은 1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1에서 제시한 스크리 도표에서 급경사 지점은 요인 7이후이고, 요인 10부터는 문항 수가 3개 이하로 극히 적어 요인수를 10개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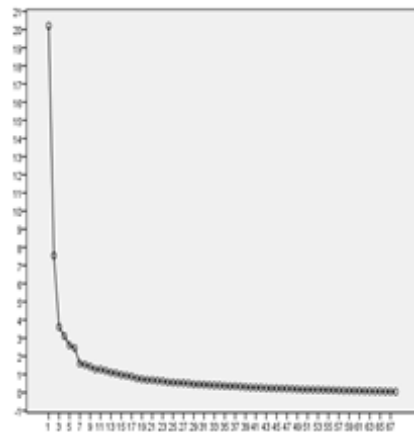


Fig. 1. Scree table

2.3.8 사교회전 후 최종 요인구조

사교회전방식 후 최종 요인구조는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만 .50이상이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요인계수가 .50미만인 문항들만 확인한 결과 53문항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문항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8문항을 선정했다. Table 2는 사교회전 후 산출된 48개 문항에 대한 최종 요인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chool dropout

No.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factor8	factor9	factor10
41	.907	.013	-.066	-.031	.016	-.040	-.015	-.013	-.033	.069
44	.907	-.033	-.086	-.048	-.008	-.037	-.063	-.034	-.042	-.066
45	.883	-.102	-.112	.007	.006	-.077	-.013	-.007	-.126	-.032
46	.811	-.030	-.039	-.089	-.178	-.014	-.032	-.013	-.033	-.025
67	.751	-.121	-.117	-.112	-.047	-.030	-.030	.088	-.072	.233
63	.653	.074	.025	.040	-.004	.077	-.003	.163	.057	.219
69	.653	.031	.016	.084	-.076	-.040	-.032	.054	-.060	.469
65	.559	.055	.207	.014	-.124	-.114	-.017	.005	-.079	.270
37	-.010	.809	.199	.212	.223	.065	.090	.005	.100	.052
39	.005	.787	.211	.175	.177	.012	.051	.189	-.014	-.001
38	-.056	.745	.137	.135	.152	.184	.154	.128	-.005	.029
34	.018	.741	.200	.223	.213	-.006	.135	.129	.118	.136
36	.114	.686	.235	.100	.118	.052	.053	.161	.202	.040
33	.004	.620	.188	.173	.095	.022	.123	.202	.279	.047
35	-.068	.611	.056	.250	.177	.106	.058	.086	.026	.134
16	-.228	.198	.775	.178	.079	.058	.081	.163	.190	.070
17	-.048	.279	.727	.105	.121	-.009	.054	.203	.216	.084
19	-.225	.254	.710	.187	.103	.121	.143	.181	.051	.048
18	-.099	.203	.684	.093	.341	.075	.154	-.002	.150	.098
54	-.139	.190	.583	.292	.310	.316	.103	-.129	.107	.158
15	.021	.134	.573	.053	.252	.010	.179	-.144	-.002	.066
50	-.016	.190	.140	.675	.097	.218	.173	.135	.036	.038
61	-.076	.094	.134	.614	.246	.182	.104	.007	.008	-.010
60	-.149	.180	.176	.588	.369	.297	.186	.021	.078	.006
49	-.056	.285	.155	.548	-.022	.161	-.027	.432	.162	.125
56	-.205	.230	.315	.524	.201	.191	.045	.158	.150	.185
55	-.084	.114	.218	.506	.354	.248	.098	-.171	.104	.068
5	-.050	.113	.046	.091	.718	.088	-.053	.036	.016	.068
3	-.037	.109	.263	.144	.644	.071	.143	-.059	.156	.003
1	-.083	.137	.039	.075	.637	.149	.175	.141	.052	-.007
4	.004	.184	.334	.225	.551	.139	-.021	-.130	.086	.019
11	-.089	.254	.173	.146	.531	.087	.280	.101	.104	-.065
51	-.038	.030	.075	.227	.161	.817	.050	.085	.052	.023
57	-.007	.026	.015	.201	.107	.755	.095	.030	.122	.037
53	-.071	.122	.155	.300	.140	.690	.102	.142	-.057	-.030
52	-.074	.070	.006	.410	.153	.560	-.031	.255	.056	.179
21	-.042	.107	.252	.104	.193	.155	.733	.044	.052	.098
24	-.001	.190	-.007	.215	.194	.089	.705	.162	.227	-.004
20	-.078	.116	.355	.158	.154	.098	.539	-.028	.084	.030
13	.026	.172	.130	.102	.023	.049	-.051	.672	.072	.099
14	.116	.209	-.020	.055	.048	.208	.107	.610	.131	.097
23	.122	.283	.083	.100	.022	.020	.296	.565	.076	.055
32	-.131	.247	.369	.249	.168	.047	.210	.209	.666	.096
30	-.136	.285	.437	.136	.062	.093	.191	.164	.638	.087
31	-.114	.244	.348	.111	.041	.222	.164	.188	.603	.106
70	.282	.107	.187	.099	.013	.053	.058	.067	.091	.669
68	.488	.097	.022	.030	-.027	.084	.003	.103	.015	.594
64	.186	.130	.189	.239	.154	.073	.069	.146	.170	.571
Eigen value	8.060	5.806	4.578	4.158	3.623	3.502	2.859	2.370	2.252	2.036
Explained variance	14.140	10.186	8.032	7.294	6.356	6.144	5.015	4.158	3.951	3.572
Cumulative variance	14.140	24.327	32.358	39.652	46.008	52.152	57.167	61.325	65.276	68.848
item	8	7	6	6	5	4	3	3	3	3

각 요인의 문항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Factor 1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요인 1에 부하된 8개의 문항들은 모두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문항들로 ‘자신의 미래’와 ‘직업선택’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인식을 묻고 있다. 이 요인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미래의 자신의 삶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인터뷰 내용의 결과를 통해 요인으로 구성되어 ‘학교생활만족’로 명명하였다. 요인 1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41 나는 학교생활이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4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 45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 46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63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
- 65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 67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 69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의 생활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Factor 2 : Smartphone Dependency

요인 2에 부하된 7개의 문항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문항들로 ‘스마트폰 의존성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문항들로 구성했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넘어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의존성이 지나치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요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의존 정도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로 요인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의존’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2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37 나는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39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34 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38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36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33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35 나는 스마트폰으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Factor 3 : Interest in Learning

요인 3에 부하된 6개의 문항들은 학습태도와 흥미에 관한 문항들로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과 ‘학업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 정도를 묻고 있다. 요인의 구성에 따라 요인 3을 조작적 정의에 의해 ‘학습 흥미’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16 학교 공부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 17 공부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 19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8 나는 학교공부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 54 나는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 15 나는 입시공부를 하지 않는다.

Factor 4 : School Stress

요인 4에 부하된 6개의 문항들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인식에 관한 문항들로 ‘등교에 대한 거부감’, ‘교칙준수가 어려움’, ‘교사와의 갈등’ 정도를 묻고 있다. 요인의 구성에 따라 요인 4를 조작적 정의에 의해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49 나는 시험이나 성적 스트레스로 학교가 싫다.
- 50 나는 선생님들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으로 힘들다.
- 55 나는 교칙위반이나 문제행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
- 56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60 나는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문제나 갈등이 있다.
- 6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학교생활보다 좋다.

Factor 5 : Attitude to School Life

요인 5에 부하된 5개의 문항들은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들로 ‘학교생활의 태도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들은 담임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전에 나타난 학교생활 태도에 대해 진술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했고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문항들이다. 따라서 요인 5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학교생활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5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1 나는 연간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걱정한다.
- 3 나는 되는 대로 일어나 태연하게 지각을 하며 등교한다.
- 4 나는 지각을 자주한다.
- 5 나는 선생님께 수업일수가 몇 일 남았는지 물어본다.
- 11 나는 수업을 하기 싫어 양호실/보건실에 자주 놓는다.

Factor 6 : Peer Relation

요인 6에 부하된 4개의 문항들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들로 ‘친구들과의 관계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구안된 문항들을 통해 ‘친구와의 경쟁’에 관한 문항이 함께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요인 6을 조작적 정의에 의해 ‘친구 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6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51 나는 학교 친구들의 무시 혹은 갈등을 자주 겪는다.
- 52 나는 친구와의 경쟁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
- 53 나는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학교가 싫다.
- 57 나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Factor 7 : Parent Apathy

요인 7에 부하된 3개의 문항들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에 관한 문항들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담임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항을 구성했고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문항들이다. 따라서 요인 7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2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모르신다.
- 2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이 없다.
- 24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

Factor 8 : Academic Achievement Anxiety

요인 8에 부하된 3개의 문항들은 학업 성적에 관한 문항들로 ‘성적에 대한 불안정도’를 묻는 문항들이다. 이 요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구성된 문항들이다. 따라서 요인 8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성적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8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13 나는 시험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 14 나는 목표한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 23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부담스럽다.

Factor 9 : Life Satisfaction

요인 9에 부하된 3개의 문항들은 모두 삶에 대한 행복감에 관한 문항들로 ‘삶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문항들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 따라서 요인 9는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삶의 대한 만족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9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30 나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 31 나는 모든 일이 다 걱정거리다.
- 32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actor 10 : Will to Graduate

요인 10에 부하된 3개의 문항들은 졸업에 관한 문항들로 ‘졸업 의지에 대한 인식과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 10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졸업 의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10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64 부모님이 실망하시기 때문에 학교는 다녀야 한다.
- 68 막연하게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 70 누구나 졸업을 하니까 나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연구결과

3.1 2차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는 최종적으로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0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일반화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공분산 행렬자료를 사용하여 최대우도 추정법을 적용했다.

3.1.1 모형평가 기준

구조모형은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수정하여 최적모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합치도 지수를 검토하는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13].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함

적합도의 기준을 대체로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CMIN/df값과 TLI, CFI, RMSEA를 사용했다[14].

TL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90에 가까우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CMIN/df의 값은 3보다 작을수록, RMSEA의 경우 하한선이 0이고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여긴다[15].

3.1.2 모형탐색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및 확인을 위해 Fig 2에서 제시된 것과 TLI값(.89)과 CFI값(.90)은 권장수준인 .9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MSEA 값(.06)은 .08이하이므로 괜찮은 적합도 수준에 해당되고, CMIN/df값 1.96으로 기준값인 3보다 적어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은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요인부하량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측정변수에 의해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일반적으로 $\lambda > .45$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수용하는 범위가 된다[16].

이러한 분석과정으로 통해 학업중단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Table 3. The concept of school dropout risk(Final)

dimension	factor	contents
external behavior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terest in Learn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class, adaption to school work, and the interest in learning
	School Stress	School refusal, difficulty of Compliance with the school regulations, and the degree of the conflict with a teacher
	Attitude to School Life	Attitude toward school life
	Peer Relation	Relationship with friends
	Will to Graduate	The degree of commitment to graduation
inner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Anxiety	The degree of anxiety about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the awareness of self-respect
parents attitude	Smartphone Dependency	The degree of smartphone dependency
	Parent Apathy	Parents' indifference to their child

goodness-of-fit index	TLI	CFI	RMSEA	CMIN/df
	.89	.90	.06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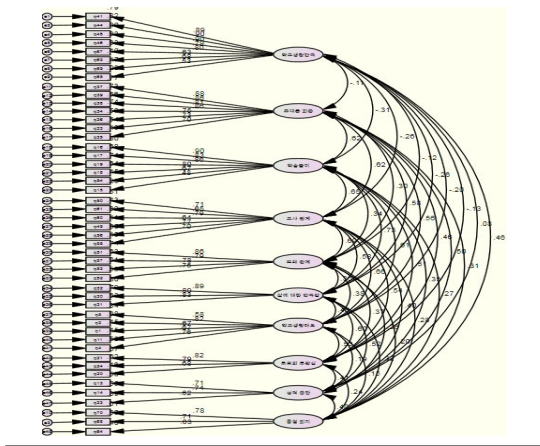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chool dropout

Fig. 2의 경로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의 요인 부하량은 .45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

각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단일차원으로 확인된 10개 요인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했다. 문항 간 상관계수 > .30 및 요인별 신뢰도 계수 > .70을 검토하였고, 문항 제거 시 전체신뢰도를 산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상관계수가 .30이상, 신뢰계수는 모든 요인에서 .70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No.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factor 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alpha = .92$)		
41	.84	.90
44	.83	.90
45	.81	.90
46	.75	.91
63	.65	.91
65	.56	.92
67	.78	.90
69	.67	.91
factor 2: Smartphone Dependency($\alpha = .92$)		

33	.71	.91
34	.82	.90
35	.66	.92
36	.71	.91
37	.83	.90
38	.77	.91
39	.81	.90
factor 3: Interest in Learning($\alpha = .88$)		
15	.49	.90
16	.80	.84
17	.75	.85
18	.79	.84
19	.76	.85
54	.62	.87
factor 4: School Stress($\alpha = .86$)		
49	.61	.84
50	.69	.82
55	.60	.83
56	.68	.82
60	.70	.82
61	.60	.83
factor 5: Attitude to School Life($\alpha = .81$)		
1	.60	.77
3	.73	.72
4	.63	.77
5	.53	.79
11	.56	.78
factor 6: Peer Relation($\alpha = .87$)		
51	.78	.80
52	.66	.85
53	.71	.83
57	.73	.82
factor 7: Parent Apathy($\alpha = .80$)		
20	.59	.78
21	.71	.64
24	.63	.73
factor 8: Academic Achievement Anxiety($\alpha = .72$)		
13	.59	.55
14	.56	.60
23	.47	.72
factor 9: Life Satisfaction($\alpha = .90$)		
30	.82	.84
31	.77	.88
32	.82	.84
factor 10: Will to Graduate($\alpha = .75$)		
64	.52	.72
68	.53	.70
70	.66	.55
Total scale($\alpha = .9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Table 5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를 완성하였다.

Table 5. school dropout scale

	contents of the survey
1	I think school life does an important role in my development.
2	School work will do a great role to choose my future job.
3	I think that what I learn in school is useful for my life.
4	School life is helpful for my social life in the future.
5	School work is important.
6	I have to attend school for my future.
7	I don't think school dropouts are living well.
8	Meeting friends at school is nice.
9	I can't endure being apart from my cell phone when I am alone because I am too bored
10	Without my cell phone, I couldn't live because it would be too inconvenient.
11	I feel nervous when I don't have my cell phone.
12	I feel I am isolated when I don't have my cell phone.
13	I lose track of time when I do things with cell phone.
14	I am spending more and more time using cell phone.
15	I fee nervous when nobody contacts me through my cell phone.
16	School work means nothing to me.
17	Studying is boring and has no fun.
18	I think that what I learn at school is not important.
19	I don't strive for my school work.
20	I can't keep up with my school work.
21	I don't study to enter college.(or upper school)
22	I feel stressed for teachers concern me overmuch or too less.
23	Hanging out with friends who are dropouts is better than going to school.
24	I have trouble in the relationship with my teachers.
25	I hate school for the stress from exams and grades.
26	School isn't helpful for what I really want to do.
27	I have difficulties with my school life for my problematic behavior and school rule violation.
28	I ask my teacher the number of my attendances.
29	I wake up at anytime and don't bother about being late for school.
30	I'm worried about the number of my attendances.
31	I am often late for school.
32	I go to school health room because I don't want to attend classes.
33	I am bullied or ignored by school friends.
34	I have trouble in hanging out with school friends.
35	I hate school for bullies and violences.
36	I find it hard to compete with friends at school.
37	My parents are indifferent to how I spend time.
38	My parents are indifferent to me.
39	My parents doesn't know where I go after school.
40	I am terrified at exams.
41	I am psychologically traumatized when I cannot achieve my aimed grade.
42	My parents' expectation is always a heavy burden to me.
43	I don't feel happy.
44	I am not living a happy life.
45	I am worried about everything.
46	I think I have to graduate from school because everyone does.
47	I vaguely feel that I shouldn't drop out of school.
48	I go to school not to disappoint my parent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탐색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경험한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학업중단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를 개발했다.

연구결과 학업중단 위험성은 청소년의 외적태도, 내적태도, 부모태도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외적태도에는 ‘학교생활만족’, ‘스마트폰 의존’, ‘학습흥미’, ‘또래관계’, ‘학교 스트레스’, ‘성적불안’, ‘졸업의지’ 등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태도는 ‘스마트폰 의존’과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태도는 ‘부모의 무관심’ 등 1가지 요인으로써 총 10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총 48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도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척도이자 최초의 검사도구라고 사료된다.

개발된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학업중단의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외적태도, 내적태도, 부모태도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총 10가지의 하위요인 즉, ‘학교생활만족도’, ‘스마트폰 의존’, ‘학습흥미’, ‘또래관계’, ‘학교생활 스트레스’, ‘삶에 대한 만족감’, ‘학교생활태도’, ‘부모의 무관심’, ‘성적불안’, ‘졸업의지’ 등의 하위요인이 학업중단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된 학업중단 위험성 척도를 통해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학업중단 위험성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발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도시의 중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 연구의 대상지역이 전국적이지 않고, 성별과 학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대상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성별, 학년 등의 고른 분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대 우도 추정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은 모두 14개 였으나 스크리 도표에서 크게 꺾이는 부분과 문항수가 3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요인의 수를 10개로 결정했다.

References

- [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407, 2003.
- [2] Chul Kyung Yoon, "Teens in Crisis, Teens opportunitie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8, 3, p.113-114, 2010.
- [3] Min Jung Kim, "The Trends of Research into Subjects om Adolescent School Droupu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3, 1, p.3-22, 2001.
- [4] www.mogef.go.kr, 2004.
- [5] Bong Sun Hong, Mi Ae Nam, "Youth welfare" p.558, yang se won, 2005.
- [6] Yon Soon Chung,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atent school dropou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 1, p.79-102, 2008.
- [7] Jung Ran Kim, Hyeo Ryeon Shin, "A Research on the Presentation of school Dropouts and Alternative Education in Busna", 8, p.71-96. 2005.
- [8] Byung Hwan Lee, "Social Adaptation Programs for schoolwork discontinuer",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9, 1, p.175-196, 2002.
- [9] Kyeong Sang Lee, Chang Nam Park, "A study on Work Experiences of school Drop-out Youths", studies on Korean Youth, 17, 2, p.265-289, 2006.
- [10] Kyung Sook Jeon, "Empirical Examination and Research on the Labor Condition of the Drop out Teen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 1, p.3-21, 2006.
- [11] Ji Hye Kim, Chi Min Ahn, "Runaway Youths school Dropout :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17, 2, p.133-157, 2006.
- [12] Gye Soo Kim,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600, seoul : spss academy. 2006.
- [13]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p.136-137. 1993.
- [14] Kee Yang Che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earning Style Inventory for 5th and 6th garders at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06.
- [15] Do Young Park, An Analysis on the causal structure of academic cognition-affection-conation and acheivement. 2000.
- [16] Levesque, C. S., Zuehlke, N., Stanek, L., & Ryan, R. M.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u.s.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p.68-84.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6.1.68>

정재민(jae-Min Jung)

[정회원]



- 2009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루터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 부모교육

노승현(Seung-Hyun Roh)

[정회원]



- 2011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12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4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게임 몰입

최은지(Eun-Ji Cho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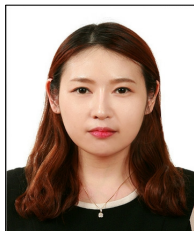
- 2012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 2013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 상담

김 한 나(Han-Na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
정보대학원 정신보건간호전공(간호
학석사)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5년 9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